



2010년 YTN 입사
現 YTN 뉴스나이트 앵커
前 YTN 사회부 기자
前 YTN 문화부 기자
前 YTN 뉴스기획팀

방송

人

사심 인터뷰

나연수

YTN 앵커

이번 4월호의 방송인 사심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YTN 보도국은 매시간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내보내기 위한 기자와 앵커, 관련 방송인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만나본 나연수 앵커는 여러 부서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2015년부터는 앵커를 맡아 밤 9시 50분부터 '뉴스나이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24시간 더 나은 뉴스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녀에게서 YTN과 뉴스 진행에 대해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리.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안녕하세요. ‘방송과기술’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의 나연수 앵커입니다. 2010년 입사하여 올해로 10년 차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2015년에 앵커로 발령을 받아 현재는 밤 9시 50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뉴스나이트’를 통해 국내외의 주요 이슈를 시청자분들께 전달하고 있고요.

YTN에 입사하게 된 과정이 궁금한데요.

저는 고등학생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학내 영상제작센터에 가입했구요. 그때 저도 기술부였어요. 매일 카메라 들고 다니고 장비 나르고 편집하면서 영화나 영상에 심취했었죠. 졸업할 때쯤 되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방송사 입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기자는 정말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PD와 아나운서로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 감을 익힐 겸 YTN 취재기자에 응시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덜컥 되고 만 거예요. 입사 초기에는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는데, 조금 다녀보니 회사 선배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적응하게 되고, 어느덧 뉴스를 진행하고 있네요(웃음).

기자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이랑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YTN 최종 임원면접에서 받은 질문이에요. 그때 “다른 어느 직업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예요. 입사 초기에 출장을 갔다가 인터넷에서 조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특이해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보도가 아닌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회부에서 일할 때는 거의 검은색, 회색 옷만 샀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니까 예쁘게 입고 외모도 꾸미고 싶었는데, 당장 오늘 어디를 가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대부분은 사건 사고와 관련돼 있거나 어려운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웃도 눈에 띄지 않는 걸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보니까 저 자신에게 그런 규제나 기준을 계속 두게 되더라고요. 제 일이 문제점을 찾고 비판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화살을 나에게 돌렸을 때 뭇뚱해지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기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및 에피소드를 잠깐 들어볼까요?

‘세월호 취재’예요. 그건 모든 기자에게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1년여 뒤에, 방송기자연합회의 재난재해 전문취재과정을 밟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도 전제가 아닌 자리는 서로에게 처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간 유가족들이 언론에 가져온 분노와 서운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 유족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재난재해’와 ‘트라우마’라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나름대로 후배들이랑 공유할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아무리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해도 세월호 취재는 모든 기자에게 상처이자 죄책감으로 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래 기억나는 취재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연평도로 들어간 축이었거든요. 그때 해경 배를 얻어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탈출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배에 오르면서 너무 다급하게 “우리 집 개를 어떡하나”고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집집마다 개들이 묶인 채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밥을 챙겨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부터 출장 기간 내내 선배들이랑 아침마다 밥해 먹고 나면, 남은 밥을 모아서 동네 개들에게 밥을 주러 다녔어요. 일주일 있다가 출장 교대를 하면서도 “개밥 줘야 한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한 달쯤 지나 연평도 아이



YTN 돌발영상 녹화 중인 나연수 앵커

템도 떨어질 즈음, 당시 출장팀이 “연평도에도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더라고요. 갓 태어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온마이크도 잡았어요. 데스크가 바로 ‘킬(kill)’한 비운의 아이템이지만 저는 얼마나 반갑고 기뻐하던지(웃음)...

기자 업무를 하다 앵커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앵커실로 이동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요?

2015년 10월 5일 자로 앵커팀에 오게 됐어요. 정식 인사철은 아니었고 개편을 앞두고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나서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발령을 받고 배치가 되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앵커 준비를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당시에 사회부 사건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가도 하던 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아이템을 기획해놓고 섭외도 몰아서 해놓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준비 없이 뉴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맡은 뉴스 프로그램은 <뉴스통>이라는 매거진 뉴스였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앵커리포트가 많이 들어가는 뉴스라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기사를 써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죠. 그때는 제가 앵커라는 개념이 없어서 외모를 꾸미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용에 충실한 전달을 하겠다는 일종의 ‘기자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 년 정도 하고 아침뉴스를 맡게 되면서 앵커의 이미지와 전달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뉴스나이트>는 잠자기 전 직장인들이 하루

를 정리하면서 많이 보는 뉴스라 조금 더 성숙하고 차분한 톤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기자와 앵커를 비교하자면?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둘 다 해본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도 현장 기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생각해요. 밖으로 보이는 뉴스는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죠. 하지만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빗속을 뛰어다니고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데 다듬을 겨를도 없이 중계를 타고... 그렇게 현장 기자들이 보내준 싱싱한 재료를 가지고 스튜디오의 앵커와 PD가 밥상을 차리는 거로 생각해요. 조화롭게 준비해서 시청자들이 어떤 것부터 먹고 싶게 만들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소화가 잘될지 고민하고 노력해서 함께 뉴스를 내보내고 있어요.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뉴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취재부서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요. 저는 출근을 오후에 해서, 오전에는 운동을 좀 하고요. 하지만 집에서나 이동 중일 때 계속 뉴스를 보거나 들어요. 출근해서는 취재 기자들이 올려놓은 국회 회의 녹취록(저희는 ‘받아치기’라고 불러요)을 훑어보고 계속 올라오는 논평 같은 것도 보고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야 하는 뉴스를 모니터링 하면서 오늘 대담 아이템을 발제해요. 요일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녹화를 해야 하는

날도 있고요. 팀 회의는 오후 5시에 시작해요. 오늘 뉴스 방향과 구성, 섭외, 그래픽, 영상에 대해 논의하죠. 6시부터 본격적으로 뉴스를 준비해요. 대담 질문지를 쓰고 화면에 들어갈 그래픽을 구성해서 의뢰하고, 녹취도 준비하고요. 나가서 저녁 먹기가 빠듯해서 보통 이것저것 집어먹으면서 일해요. 밤 8시에 의상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8시 반, 그때부터는 앵커 멘트를 고치고 오프닝·클로징 멘트를 쓰고 9시 40분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요. 9시 50분부터 2시간 생방송 뉴스를 진행해요. 1부는 종합뉴스, 2부는 그날의 이슈 대답이고요. 뉴스 끝나면 자정인데, 잔뜩 긴장하고 뉴스한 직후라 그런지 퇴근해도 바로 잠들진 못해요. 그날 뉴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후회도 되고 울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다가 새벽 3~4시쯤 잠드는 편이에요. 2년 동안은 새벽 3시에 출근했고, 최근에는 자정에 퇴근하다 보니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원치 않게 혼자 놀고 있어요(웃음).

본인의 뉴스 진행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만족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세 보이면 좋겠다, 생동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은 있는데, 억지로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오히려 보는 사람이 어색해하더라고요. 2년 전에 앵커팀에서 기술팀에 앵커 평가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부조정실에서 뉴스에 가장 집중하시는 분들이라 평가도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차분하게 진행한 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런 점을 잘 살리려고 해요.

사전 준비도 있고, 뉴스를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힘든 부분이지요. YTN은 24시간 뉴스를 하다 보니, 사실 모든 직원의 업무량이 과중한 편이에요. 신입사원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거죠. 비 오고 태풍 오고 하면 하루에 스무 번씩도 중계를 타기도 하니까요. 저희도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지’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저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서 모두 그렇게 하니까요. 이런 현실이 저에게 주어진 여건이고, 제가 좋다고 일하는 회사니까... “하면, 합니다”(웃음).

파업 직전에 “YTN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저도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분간 아침 뉴스를 진행하지 않는다. 스튜디오 밖에서 더 좋은 뉴스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클로징이 화제였는데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희는 앵커가 자리를 비우게 됐을 때, 그 이유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왜 앵커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 대신 뉴스 들어올 분이 “나연수 앵커는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뉴스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전달할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분간 뉴스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가치 판단 없이 팩트만 담백하게 말한 거라 화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YTN 파업 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클로징 할 땐 조금 슬프고 울적했지만, 파업이 종료되고 자리로 돌아왔으니 비워둔 시간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파업이 끝난 이후에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요?

음... 글썄요. 제가 회사에 다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YTN은 항상 갈등상태였어요. 많이들 무기력했고, ‘해도 안 될 거야’라는 패배 의식 같은 게 만연해 있었어요. 파업이 끝났다고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여전히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부족하고 갈등은 많고 노사는 싸우고,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뉴스의 방향을 놓고도 계속 토론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때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전처럼 무기력하게 시키는 뉴스를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 되는 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실제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더 나은 조직과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보





이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여전히 비슷한 문제는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기대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기술이나 방송기술직군에 대해서 아는 바라던가, 인상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술직군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보통 취재기자는 직원들의 이름이 뭔지, 어느 부서인지, 몇 기인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아요. TV에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정작 기자들은 기술직군 동료들을 잘 몰라요. PD를 해서 부조정실에 들어와 보기 전까지는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도 성함도 모르고 선배인지, 후배인지조차 모르는 일이 허다해요. 누구냐고 대놓고 여쭙보는 게 막상 실례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그룹웨어 전화번호부를 일일이 눌러서 이름이랑 얼굴을 외우기도 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보통 신입사원은 회사 안에서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는데요. 그럴 때 “나는 누구누구이고, 몇 기야.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 자주 보자”라고 얘기해주시면 친분을 쌓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기술 분야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PD나 앵커들이 방송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카메라 샷이나 화면 구성들을 많이 고민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지 의논할 수 있는 기술직군 동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역 침해라고 생각해서 조

금 불쾌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제가 뉴스하는 내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화면 개선이나 뉴스 전달 방식을 발전시키려면 기술직군이랑 편집부, 취재부서 간의 소통이 더 활발했으면 해요.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인해 뉴스 포맷이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요?

뉴스 포맷은 이미 제 연차에서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대다수 언론사가 전사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언론은 먼저 대안 포맷을 제안하기보다는 시청자의 요구에 한발 늦게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TV 수상기의 틀을 벗어나 시청자의 손바닥으로 들어간 뉴스가 앞으로 또 어떤 진화를 거듭할지 사실 저는 이제 가늠도 잘되지 않아요.(된다면 이과를 갔겠죠?). 다만 동시다발적, 쌍방향으로 정보가 쏟아지는 환경일수록 기자들의 훈련된 취재력과 전달력, 그러니까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는 다시 강해질 거로 생각해요. 어떤 포맷이든지, 뉴스의 힘은 결국 콘텐츠의 질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송인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과연 직업을 잘 선택한 것일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10년째 하고 있지만, 그런 고민 없는 직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보고 세상의 불평등함에 속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선배가 해준 말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 직업이 좋아. 적어도 내 일을 통해서 단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할 수 있잖아.”

앞으로의 목표, 다짐은?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진실을 향해, 양심을 따라, 진심을 다해 일하자”고 다짐하고 있어요. 좌우명은 멋있지만 사실 하루하루 겨우 버텨내는 날들이 많아요. 그런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 한 번씩 보람을 느끼면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0년 뒤에도 지금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 잘하고 기분 좋게 퇴근하기가 오늘의 목표, 10년 뒤에도 이만큼의 다짐은 가지고 일하기가 일에 대한 목표예요. 감사합니다. 📺